



## 60년의 힘으로 새로운 세기를

대림산업(주)

**새**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의 새해가 밝았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하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길고 긴 터널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우리 국민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 국제 금융 기구 탈출의 기반을 닦고 경제 성장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지난 1년을 보내왔다.

그 동안 대림산업(주)은 계열사 매각, 보유 주식 및 부동산 매각, 석유 화학 부문 빅딜, 외자 유치 등의 구조 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IMF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LG-Caltex 주식 등 보유 자산 매각, 서울증권을 통한 해외 자본 유치, 한화와의 석유 화학 빅딜 등을 통해 성공적인 구조 조정을 이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모범적인 기업 사례가 되었다. E(Engineering) & C(Construction) 합병의 구조 조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1998년부터 실시하여온 지식 경영

을 통해 전임직원에게 체계화된 지식을 교육하고 공유함으로써 건설 공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영의 혁신을 이루었다.

원전 건설에 뒤늦게 참여한 대림 산업(주)은 시공의 품질 향상과 기술력 고도화로 건설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원전 건설의 참여를 위하여 영업 능력 확장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서 대림산업(주)은 실력과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1998년부터 지식 경영(Knowledge Management)을 시작하여 왔다. 60년의 역사 동안 우리가 가졌던 경험·지식·노하우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지식 경영의 결과를 전임직원들이 같이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왔다.

지식 경영을 바탕으로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기 위하여 「MIS」라는 경영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공사·자금·회계·노무·인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신속히 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E(Engineering) & P(Procurement) & C(Construction)

대림산업(주)은 1939년 10월 10일 창업 이래로, 창업 50주년이 되는 1989년에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대림 21 전략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룹의 비전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로 정하고, 목표를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의 GENE-CON'으로 하여, 세부 실천 사항으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하여 '기술력 고도화/시장 다변화/경영 체질 소프트화'를 추구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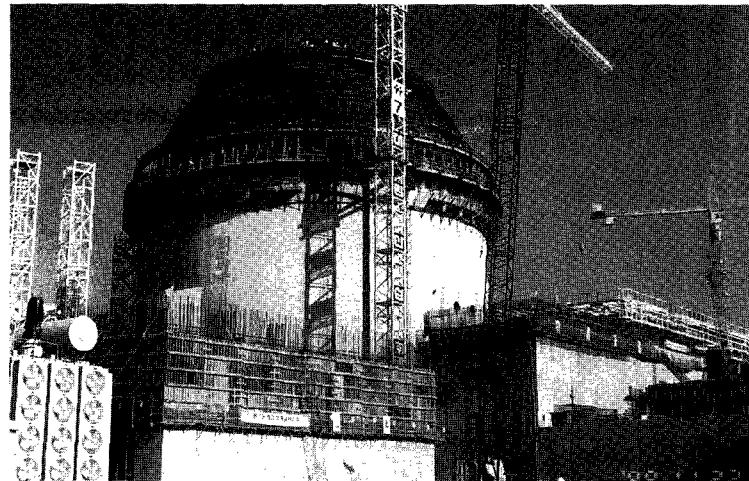
창업 60주년이 되는 1999년에는 '60년의 힘으로 새로운 세기를' 이란 슬로건 아래 기업 체질 개선과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내실있는 기업 운영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대림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을 이뤄 건설 시공 능력과 엔지니어링 설계 및 조달 능력 등 핵심 역량의 강화를 통해 초우량 건설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 및 지속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영업 체제에 중점을 둔 경영을 추진함은 물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 운영 체제와 프로젝트별 경영 체제를 구축하였다.

### 신뢰받는 원전 건설

대림산업(주)는 1995년 8월 영광 원전 5·6호기를 수주하여 계획 공기에 따라 차질없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전직원 모두가 총체적 역량을 다하고 있다.

대림산업(주)는 영광 원전 건설 초기에 미국의 Sargent & Lundy 사로부터 프로젝트 관리/건설 관리 /품질 관리 등에 대하여 기술 이전을 받았으며, 원전 건설 시공성 향상 연구 용역을 한국전력기술(주)와



대림산업(주)는 1995년 8월 영광 원전 5·6호기를 수주하여 계획 공기에 따라 차질없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전직원 모두가 총체적 역량을 다하고 있다.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원전 건설의 시공 기술 능력 향상을 연구해왔다.

이제는 「사업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기반 구축」, 「기술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투자 분석, 공사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자원 관리(인력·자재·장비·협력 업체 등)」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기술(주)가 주관하는 표준 원전 설계 개선 사업에 참여하여 「철근 자동 배근기 사용」, 「PREF-ABRICATION 및 모듈화 공법 적용」, 「RCB 건물 건설 공기 단축」, 「DECK PLATE 공법」 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자립을 통해 차기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해외 원자력발전소 시공 기술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를 통하여 신기술 개발과 시공 기술 능력 향상에 전념해 왔으며, 그동안 축적된 원자력 기술력을 집약하여 해외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직원의 교육과 훈

련으로 현장 관리 및 시공 기술에 대해 보다 전문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대림 원전표준절차서 작성, 원전 사업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를 지원할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원전 건설 시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대림산업(주)는 원전 시공 기술 자립을 근간으로, 효율적인 공사 관리/자원 관리(인력·자재·장비·협력 업체 등)/기술 능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뉴밀레니엄 시대에는 원전 건설에 지속적인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는 물론 해외 차기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그동안 플랜트 건설로 쌓아온 대림의 명성과 원전 건설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무한 경쟁의 세계 시장에 곳곳에서 대림의 이름을 찬란하게 펼치며, '60년의 힘으로 새로운 세기를'이라는 슬로건처럼 새 천년에는 60년 동안 집약된 총체적 역량을 펼치기 위해 서서히 비약의 몸짓을 하고 있다. ☙